**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신임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성명**

한국어 버전 아래 참조

2022년 8월 1일

저는 오늘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으로 인권이사회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당 위임권한을 수행해낼 수 있으리라 신뢰해주신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임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위해, 더 크게는 한반도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평화를 도모하는 데 크나큰 책임감과 의무를 느낍니다.

세 명의 전임 특별보고관이 위임권한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국 당국 또는 정부관계자와의 대화 통로가 결여되었거나 혹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최우선적으로 해당국 정부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국 내 인권 상황의 여러 면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유관 정보의 출처를 확보 및 확대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국 정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다변화하려면, 향후 여러 유엔 기관과 여타 위임권한과의 교류가 필요할 것이기에 이를 요청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전략적 우선 순위와 더불어, 위임권한을 수행하는 데 있어 피해자를 중심에 두는 접근 방식을 고수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수십년에 걸쳐 인권 또는 인도적 노력의 중심에 반드시 피해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타당성과 유효성도 피해자를 중심에 두는 접근 방식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향후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해당 위임권한을 수행하는 첫 여성 특별보고관으로서 특히 여성과 여아의 필요와 역경에 국제공동체가 더욱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대응하고자 엄격한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이 지난 2년 6개월 간 더욱 악화됐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도소 내 상황 등 이미 수 십년 간 이어져 온 인권 침해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물자를 해당국 내로 반입하고 대화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화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지 여부에 달렸으며,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평화, 안보, 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도 좌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사회에 다가서는 한편, 해당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피해자단체, 유관국 정부 및 기타 관계자의 협력도 구할 것입니다. 제가 위임권한을 수행하는 데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국제공동체가 더욱 단호히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임 비팃 문타폰, 마르주끼 다루스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임기 동안 쌓아온 뛰어난 업적들도 저에게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향후 위임권한 수행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전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성명, 권고를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특별보고관으로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며, 향후 몇 주 안에 포괄적인 업무 계획을 마련하려 합니다. 중단기 목표와 활동 계획을 담은 첫번째 보고서를 올해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을 곧 만나뵙고, 같은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고대합니다.

끝

**엘리자베스** 살몬(페루)은 2022년 8월 1일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인권이사회의 임명을 받았다. 해당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을 수행하는 첫 여성으로 현재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 법학 교수로 국제법을 담당하고 있다. 동 대학의 민주주의 인권 연구소장직도 맡고 있다. 세비야 대학(스페인)에서 국제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살몬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콜롬비아 특별평화법원의 자문으로도 참여했다. 페루 법무부와 국방부,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자문으로도 활동하였다. 세미나, 국제회의 등 전세계 여러 행사에 연사로 참여했으며, 국제공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국제인도법 및 전환기정의에 대한 여러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특별보고관에게 아래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가능합니다.

*hrc-sr-dprk@un.org*

기타 정보 및 언론 요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주십시오

Madoka Saji (+82 10-4230 3523 / *madoka.saji@un.org**)*